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오바다서-

## 에돔의 죄 II

(오바다 1 : 10 - 14)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해하려고 하고 그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입니다.

성경은 항상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에게는 형제성(brotherhood)이 결여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에돔은 짓밟힌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에는 많은 동맹군으로 인하여 교만했고, 자신들의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오히려 동맹군들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되었고, 지혜로 인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많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이 혹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형제가 비록 원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실수를 비웃거나 기뻐하고, 형제의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 1. 형제성의 결여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0절).

오바다 선지자가 지적하는 에돔의 죄는 형제성의 결여입니다. 에돔은 교만했고 형제를 천대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신 23:7)고 하나님은 형제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들에게 포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Unbrotherliness'라고 합니다.

에돔의 별명은 '살인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들은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민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 5:8)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제를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이 혹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해도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형제가 비록 원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진리와 위배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실수를 비웃거나 기뻐하고, 형제의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4번 함락을 당했는데 그 중 2번이 에돔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돔은 항상 유대 민족에게 가시였습니다.

### 2. 죄는 성장한다

어린이의 키가 자라듯 죄도 성장합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했고, 시기심으로 인하여 에돔은 강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강박한 사람은 잔인해지고 마침내는 피 흘리는 전쟁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죄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 결국에 가서

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윗의 죄는 본래 게으름으로부터 왔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궁궐에서 쉬고 있다가 담 넘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 이것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배고프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나오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돔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행위는 가인에 의해 생겼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에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형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돌보고 우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계양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

에돔은 형제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불행을 당할 때 구경꾼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3절).

하나님께서서는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그의 재산을 주머니에 넣는 악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 3. 하나님께도 성장하라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4절).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형제를 원수에게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철학은 형제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었고, 결국은 그 통치 철학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겨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좇아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홍해작전

## 6월6일(금) 새벽 5시 교회에서 만납시다

드디어 2003 홍해작전 개전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주변에 산적해있는 난관들, 복핵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의 위기, 정신없이 타락의 길을 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교회는 특별히 금년 홍해작전에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 곧 전 교회학교가 부서별 작전계획을 세워 홍해를 함께 가르기로 작정하였다.

모든 성도가 금년 홍해작전을 통해 기도제목을 살피고 점검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 <2003년 홍해작전 조직위원>

- 사령관: 이종윤 목사
- 참모장: 정병무 장로

부서	참모	위원
기획 참모부	박두호	최형열 최양진 김규태 송인권 정동호 김종근
예배 참모부	성준경	오광환 서춘식 최용걸 류종관 이학주 이양철 백수남 송병식
동원 참모부	이완형	황정옥 이승우 장영철 김인수 이남성 김현영 윤성남 이태원 최홍렬 김금준 남여교구간사전원
안내 참모부	이복규	신용식 전기섭 조정식 최학인 박정선 박두영 한일동 양인수 윤운식 하인선 차량관리부전원
봉사 참모부	이관규	이계홍 이상호 김찬용 오유식 임옥근 탁경준 허상한 이재원 양춘경 조동완

### <2003 홍해작전 교회학교 부서별 계획>

#### <유아부>

1. 교사특별금요기도회  
1차: 6월6일 2차: 6월13일 3차: 6월20일
2. 유아부 교사 아외전도 - 일사: 6월 18일 수요일

#### <유치부>

1. 기도합주단(C.O.P)결성
2. 학생들을 위한 중모기도제목 파악
3. 작전참여 독려 - morning call, carfull
4. 교사 총동원 기도의 날 지정 - 홍해작전 기간 중 3회
5. 교사 특별기도회 - 기간 중 1회

#### <유년부>

1. 유년부 어린이 및 교사 총동원 참석 - 6월6일 홍해작전 첫째 및 지정일

2. 과별 주력 금요기도회  
6일: 부장단 및 신임과 교사 13일: 1학년 과장 및 교사  
20일: 2학년 과장 및 교사 27일: 3학년 과장 및 교사

3. 홍해작전 토요 축구 전도 퍼레이드  
· 7일: 1, 2학년 팀 대 3학년 팀 게임  
· 14일: 제자팀 대 지파팀 대항  
· 21일: 1, 2학년 교사 팀 대 3학년 교사팀 대항

4. 홍해작전 기념 달란트 시상  
일사: 6월22일(주) 오전 10:30 - 11:00  
장소: 701호 교육실

5. 토요 학교 앞 전도 - 명함 전도
6. 전도상 시상  
일사: 6월 22일(주)  
대상: 상반기 전도 1, 2, 3등 5월 이후 전도한 이모두

#### <중등부 - 수요일 어린이 예배부>

1. 교사 총동원 새벽기도회 - 홍해작전 첫째 날 6일(금), 마지막 날 25일(수)
2. 교사 친목회, 금요 심야 기도회  
6일: 교사 연합 금요심야 기도회  
13일: M.B.T.(성격유형검사) workshop  
20일: 교사 연합 금요심야 기도회

3. 총동원 전도주일  
일사: 29일(주), 대상: 홍해 작전 기간 중 작성한 태신자 초청
4. 학교 앞 전도 및 어린이 심방  
-어린이-

1. 총동원 어린이 새벽 기도회 - 홍해작전 첫째 날 6일(금), 마지막 날 25일(수)
2. 주일 공과공부시간 중 홍해작전 교육  
① 홍해도하 영상을 보여주기 ② 각주 미다 기도제목 나누기  
③ 전도에 관한 교육

#### 3. 각 반별 기도 동아리 만들기

4. 총동원 전도주일  
일사: 29일(주)  
대상: 홍해 작전 기간 중 작성한 태신자 초청  
<어린이 찬양 예배부>

1. 어린이 및 교사 총동원 - 홍해작전 첫째 날 6일(금), 마지막 날 25일(수)

2. 매 주일 홍해작전 어린이 기도회
3. 국군 장병께 편지쓰기 - 일사: 15일(주)
4. 홍해작전 성경퀴즈대회 - 제목: 도전 천국 문을 열리라  
일사: 6월22일(주) 저녁5시

#### <중등부>

1. 학교 앞 토요 전도 및 신우회 모임 - 일사: 7일, 14일, 21일
2. 홍해작전 성경퀴즈대회 - 일사: 22일(주), 범위: 출애굽기
3. 홍해작전 학생기도회 - 일사: 8일(주) 15(주) 22(주) 오전 10시
4. 잃은 친구 숨은 친구 찾기 - 일사: 29일(주)

#### <고등부>

1. 모세 기도회(학생, 부모, 교사 연합기도회)  
일사: 6일(금) 홍해작전 새벽기도 후
2. 토레 모임 - 일사: 1일(주)
3. 교회 주변 및 학원 앞 전도 - 일사: 1일(주) 15일(주)
4. 학교 앞 전도 및 학교 심방 - 일사: 수요일: 7, 14, 21, 28일  
토요일: 11, 18, 25 일

5. 새친구 초청잔치 - 일사: 29일(주)  
<대학부>

1. 총동원의 날 - 홍해작전 첫째 날 6일(금), 마지막 날 25일(수)
2. 잃은 양 찾기 작전 - 일사: 7일(토), 14일(토), 21일(토) 3시
3. 여름 수련회 준비기도회  
일사: 1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701호

#### <청년부>

1. 나 홀로 집에 양 찾기 작전
2. 2003 청년 Calling - 청년 festival (7월13일 주일)  
<새기독교부>

1. 개인 기도 카드 작성
2. 전체 연합기도회 - 일사: 13일(금) 오후 7시 30분  
<신혼가정부>

1. 기도합주단(C.O.P) 결성
2. 양육비전 설정
3. 다니엘 기도 실시 -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4. 총동원 기도 - 홍해작전 기간 중 3회
5. morning call 및 carfull 조직
6. 아외 기도회  
<사랑부>

1. 사랑부 팸플릿 제작/ 장애인 전도
2. 교사 기도회 - 일사: 13일(금)

## 제8대 장로 6명 피택되다

우리 교회 8대 장로 선거가 지난 5월25일(주) 공동의 회시에 있었다. 총 투표자의 2/3 이상 득표자는 신용식 전기섭 조정식 최학인 박정선 박두영 등 6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6개월간 당회 지도하에 소정의 교육을 필하고 당회와 노회의 고시를 거쳐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시 안수를 받고 시무에 들어간다.



신용식



전기섭



조정식



최학인



박정선



박두영

## 기관별로 식당 봉사기로

오늘부터 당회원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매주일 마다 넘쳐나는 성도들로 8층 식당이 혼잡하고 그릇 등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늘부터 각 기관별로 순번을 정해 매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0-12명의 인원이 식당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늘은 순번에 따라 당회원들이 먼저 봉사를 시작하게 된다. 6월중 식당에서 봉사하게 될 기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일자	6월1일	6월8일	6월15일	6월22일	6월29일
기관	당회원	스데반회	권사회	빌립	안드레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교육 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교사들의 심령을 가다듬고 맡기신 생명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기 위하여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6월3일(화)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이 날 강사로는 한상은 목사(교육위원회 지도)가 서게 되며 '교회학교 부서가 갖추어야 할 8개 요소'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게 된다. 교사된 성도들과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

### 5월 새가족 환영의 시간 - 찬양예배시

강동연 강동희 강은숙 권순경 권순민 권순영 권정원 김범주 김희정 김강산 김경우 김경연 김금례 김명애 김미란 김민경 김보원 김성수 김수윤 김승연 김승연 김승환 김영림 김영숙 김영우 김재현 김정분 김정혜 김정훈 김지수 김지연 김태수 김현철 김향민 김영남 김혜연 김호준 김효영 나인영 박노영 박노은 박상미 박성원 박정원 박지석 박찬미 박찬순 백성훈 백소영 백영순 백종명 백태훈 백영준 손영호 손윤수 손정훈 손혜민 손호세 이송영석 송인규 송인숙 송혜수 안성희 안혜민 양미숙 여동옥 여유연 여인영 연재호 윤덕준 우경애 우순의 원찬용 유지민 유효빈 윤수현 이경진 이규만 이기일 이영금 이선주 이선희 이영선 이윤정 이인숙 이정민 이정현 이지우 이애민 이홍재 임광매 임홍훈 임진오 전복남 정영성 정미연 정양숙 정용문 정원재 조옥인 조유민 조정민 조준영 주미영 주병희 주서영 주희영 진명자 차신애 차영도 차은숙 최서원 최승을 최은희 최정철 최정호 추근열 추재덕 추재민 태근배 한복자 한상우 홍정훈 황예지 이상 124명

#### <예배다부>

1. 홍해작전 기간 중 수화 특역
2. 농아학교 전도, 직장전도, 농아노점상 전도
3. 금요 심야 기도회  
<장년부>

1. 장년부 교사 연합기도회 - 일사: 13일(금) 오후 7시 30분 602호 대상: 1 - 5부 교사 전원
2. 홍해작전 안보 특강 - 일사: 2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
3. 장년5부 성경암송대회 - 범위: 역대상 4:9-10

찬양대 세미나

# 우리 찬양대는 은혜로운 찬양대인가?

가지고 있다. 지휘자를 신뢰한다. 기도모임을 갖고 성경공부를 힘쓴다. 대원들 간의 교제를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 대장 이하 임원과 지휘자의 의견이 언제나 하나로 모아진다. 반면에 좋지 않은 성가

대는 출석률이 70%이다. 자신이 속한 찬양대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찬양 이외에 별 행사가 없다. 대원들 간에 대화가 없다. 연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역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참석한 한 찬양대원은 자신의 찬양대를 진단하며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자신의 찬양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연습도 즐겁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신화 교수는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노래하는 자세와 호흡과 기본 발성에 대해서 강의하고 노래에 적용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일년에 한 차례씩 하는 찬양대 세미나. 찬양대원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강의는 반복해도 넘치지 않는다. 허숙(편집부)

찬양위원회는 지난 23일(금)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며 이화여대 교수인 박신화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찬양대 세미나를 열었다.

박신화 교수는 먼저 찬양대의 정의와 임무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찬양대는 노래하는 제사장의 모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연습된 음악을 기쁨으로 바치는 그룹이라고 했다. 또한 찬양대는 예배의 시너이며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므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인 노래를 부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무엇

보다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목소리와 음악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대원은 한 주일의 삶의 정점을 주일예배의 찬양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찬양대원 가운데 상습적으로 연습에 지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연습을 하지 않은 채 주일 아침 서둘러 찬양대에 서는 사람은 없는지, 자신의 목소리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현재 영락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로서도 활동하는 박신화 교수는 찬양대 지휘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좋은 찬양대와 좋지 않은 찬양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찬양대는 출석률이 80~85% 이상이다. 주중 연습을 한다. 찬양대원들이 자신의 찬양대에 자부심을

## 한 령(유아부 자모회장)

저희 유아부에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 친교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새 세대 엄마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3주에 걸친 전도사님의 강의로 참된 그리스찬으로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올바른 방법과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길을 배울 수 있었고 엄마들끼리의 자유로운 토론과 교제로 여러 가지 유익한 육아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주, 올림픽 공원으로 간

# 새 세대 엄마들의 모임을 마치고



무엇을 가르칠까?'를 매순간 고민하는 우리 엄마들, 경작 자녀들의 영혼이 주안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음을 깊이 반성해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나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되어져야 할 자녀들임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하느라 애쓰신 박 전도사님과 유아부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누는 자모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봄 소풍 시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하루에도 여러 번 기뻐다가도 슬프고, 화났다가도 즐거운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 아이의 건강과 똑똑함을 위해 '무엇을 먹일까?

## 특별 신앙강좌

# 천국과 천재의 비밀

26일 오후 7시30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박성수 장로님의 특별 강좌가 있었다.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신과 전문의면서 또한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강의 내용은 특히 학부모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공부에만 관심과 열정을 쏟지 말고 주일날 겨우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신앙의 훈련을 다한 것으로 수준을 잡지 말며, 얼마나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공부시키는 것과 똑 같은 열정을 보이라는 것과 일상생활의 모니터를 향상 하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연구나 조사와 집계에 의하면 범죄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대개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 혹은 공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고 좋은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일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하다보니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은 충분히 수긍이 되었다.

동시에 장로님은 이웃의 말이나 어떤 분야의 책 혹은 자신의 경험은 참고로 하되 항상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속에 내재한 천재성과 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마음과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중에 방해하는 나와 세상,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늘나라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역설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영성을 회복하며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복한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단지 성경을 지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아직도 길

은 굴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죽음을 맞는 지하고회의 순교자들에 대해 언급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아시아를 복음화 시키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한 번 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완성하자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강의에 참석한 성도나 요약된 글을 읽는 모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소원해본다.

유명희(편집부)



